靈樞·海論에 대한 연구

정동수 · 정헌영*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Study on the *Hae Ron* of the *Young Chu*

Dong Su Jeong, Heon Young Jeong*

Departmen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i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Hae Ron(海論) was recorded to Tae So(太素)'s volume 5 Sa-hae-hap(四海合), Gap Eul(甲乙)'s volume 1 chapter 8 Sahae(四海) and You Gyeong(類經)'s volume 9 Gyung-lak-ryu-sam-sib-yi(經絡類三十二) Yin-ji-sa-hae(人之四海). Human body has the Sahae(四海; Gi hae, Heul hae, Sugok hae, Su hae) as like as Earth has Sahae(四海; East sea, West sea, South sea, North sea). Person's Sahae corresponds with Earth's Sahae. This Chapter is explaining about Acupoint's position that Sahae's Gi-hyeol(氣血) comes in and go out, symptoms of disease, that can appear When Sahae lost homeostasis and the treatment principle. Yeong-wi-gi-hyeo (營衛氣血) enables complex vital phenomenon of human body. This Yeong-wi-gi-hyeo (營衛氣血) can not move if there is no systematic O-jang-yuk-bu (五臟六腑), Sip-yi-gyeong-maek (十二經脈) and Gi-gyeong-pal-maek (奇經八脈). For these system batch, it is Sahae do most important part. Sahae is synthetic and systematic concept. This chapter is explaining the position and function. Together, This chapter is presenting symptoms and treatment principle that can appear when Sahae overbalanced. This is offering important clue in Korean medicine physiology and pathology phenomenon study. Therefore, I gathers and compares and analyzed commentses of several doctors to grasp definitely this chapter's contents, and also investigated and translated.

Key words : Hae Ron(海論), Sahae(四海), physiology and pathology phenomenon

서 론

「海論」은 『太素』 卷五 「四海合」에, 『甲乙經』에는 卷一 第八 「四海」에, 『類經』에는 卷九 經絡類三十二 「人之四海」에 편술되어 있다.

馬가 "사람에게 四海가 있음을 論述하였으므로 篇名을 海論이라고 하였다."[1]고 하였듯이, 本篇은 天地 自然界에 존재하는 四海와 인체에 존재하는 四海의 相應, 人體四海의 氣血이 들고 나는 위치가 되는 輸穴의 位置, 人體四海가 調節을 잃어서 有餘와 不足의 상태가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病症과 그 治療原則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인체는 복잡다단한 생명현상의 유지를 위하여 五臟六腑·十二經脈·奇經八脈 등의 구조적체계를 갖추고 일정한 법칙에 따라 營衛氣血을 운용하고 있는데, 本篇은 이러한 체계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管掌하는 네가지 기능 계통을 특별히 강조하여 四海라 命名하여 그 위치와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病理的 狀態에서 나타날 수 있는 症狀들을 나열하고, 治療의 原則까지도 제시하고 있어 韓醫學的 生理病理現象의 연구에 중요한 端緖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本篇의 內容을 보다 明確히 把握하기 위하여 諸家의 註釋을 聚合하고, 比較 分析하여 理解하기 쉽도록 飜譯하고 考察하였다.

연구방법 및 자료

本篇은 內容별로 三六으로 나누고, 原文과 註釋에 懸吐를 하여 理解하기 쉽게 하였으며 校勘, 字句解, 較註, 考察, 直譯, 意譯, 考察 및 結語의 순서로 연구하였다.

* 교신저자 : 정헌영,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jikjae@wonkwang.ac.kr, · Tel : 063-850-6808

· 접수 : 2006/10/05 · 수정 : 2006/11/06 · 채택 : 2006/11/30

1) 馬: 內論人有四海故로 名篇이라

가. 原文은 王의 「聚珍倣宋版印本」을 底本으로 하였다.

나.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原則으로 하였으며 現代化하려고 노력하였다.

다. 校勘에 引用한 文獻은 <表 1>과 같다.

라. 字句解는 原文의 뜻에 合當한 音과 訓을 擇하였다.

마. 較註는 <表 2>의 자료에서 類似한 內容別로 모았으며 모은 註釋 중에서 가장 合當한 것을 國譯하고 그 註釋의 原文들은 脚註로 하였으며 較註과정에서 重點的으로 飜譯한 註釋에 '●'으로 표시하였다.

바. 直譯은 原文의 문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사. 意譯은 含蓄된 뜻까지 理解되도록 敷衍해석하였다.

아. 本 硏究에 使用한 符號는 校勘에 ')', 字句解에 '( )', 較註에 '〔 〕', 引用文獻에 '『 』', 인용편과 논문에 '「」' 로 表示하였으며 脚註는 ' 1) , 2) , 3) …… '의 一連番號로 表示하였다.

表 1. 校勘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번호	書 名	약칭
3	黃帝內經太素	太素
4	甲乙經	甲乙
8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合注本

表 2. 校註書目 및 略稱

番號	註釋家	時 代	註 釋 書 名	略 稱
1	楊上善	隋	黃帝內經太素	楊
2	王 氷	唐(762)	黃帝內經靈樞	王
3	馬 蒔	明(1580)	靈樞注證發微	馬
4	張介賓	明(1624)	類經	景岳
5	張志聰	淸(1672)	靈樞集注	張
6	黃元御	淸(1756)	靈樞懸解	黃
7	丹波元簡	日(1808)	靈樞識	丹波
8	山東省中醫硏究所	(1962)	靈樞白話解	白話
9	山東中醫學院	(1979)	甲乙經校釋	甲校
10	郭靄春	(1981)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語譯
11	河北醫學院	(1982)	靈樞經校釋	校釋

연구내용

第 1章 人體의 四海

【原文】

黃帝 問於岐伯 曰余聞刺法於夫子에 夫子之所言이 不離於營衛血氣하니 夫十二經脈者는 內屬於府藏하고 外絡於肢節호대 夫子乃(1)合之於四海1)(2)乎아

岐伯 答曰人亦有四海 十二經水(3)니 經水2)者는 皆注於海하야 海有東西南北이니 命曰四海[1]니이다

黃帝 曰以人應之는 奈何오

岐伯 曰人有髓海요 有血海요 有氣海요 有水穀之海니 凡此四者로 以應四海也3)[2]니이다

黃帝 曰遠乎哉라 夫子之合人天之四海也라 願聞應之하니 奈何오

岐伯 答曰必先明知 陰陽表裏榮輸(4)所在하야 四海定矣[3]니이다

【校勘】

1) 四海乎: 『太素』에는 "四海何乎"로 되어 있다.

2) 經水: 『太素』에는 "十二經水"로 되어 있다.

3) 以應四海也: 『太素』에는 "所以應四海也"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乃(내): 어찌 내

(2) 海(해): 聚也, 集也, 모일 해

(3) 十二經水(십이경수): 『靈樞·經水篇』에 淸水, 渭水, 海水, 潮水, 汝水, 濉水, 淮水, 漯水, 江水, 河水, 濟水, 漳水라고 하였다.

(4) 榮輸(형수): 五腧(井滎腧經合)를 지칭한다.

【較註】

[1] 人亦有四海 十二經水 經水者 皆注於海 海有東西南北 命曰四海

馬·張은 "天은 生物을, 地는 成物을 주관하니 사람의 형체는 땅의 四海와 十二經水에 호응하게 된다.2)"고 하였다.

[2] 人有髓海 有血海 有氣海 有水穀之海 凡此四者 以應四海也

太素·景岳·張은 "十二經水는 모두 東海로 흐르고, 東海가 크게 돌아서 四海가 되며, 十二經脈은 모두 胃海로 흘러들고, 水穀胃氣가 흘러 돌아서 氣海·血海·髓海가 되니 水穀之海는 東海에 비유될 수 있다.3)"라고 하였다.

[3] 必先明知 陰陽表裏榮輸所在 四海定矣

太素·語譯·景岳·張·白話解는 "반드시 먼저 經脈의 陰陽과 臟腑의 內外表裏와 五腧穴의 所在部位를 알아야 四海를 확정할 수 있다.4)"라고 하였다.

【直譯】

黃帝께서 岐伯에게 물으셨다. 제가 선생님께 刺法을 배웠는데, 선생님의 가르침은 營衛血氣와, 안으로는 府藏에 속하고 밖으로는 肢節에 연락되는 十二經脈에서 벗어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刺法이) 四海와 관련된다고 하십니까?

岐伯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또한 四海와 十二經水가 있는데, 經水는 대부분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는 東쪽에 西쪽에 南쪽에 北쪽에 있으니 四海라고 명명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대응시키면 어떻습니까?

岐伯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는 髓海·血海·氣海·水穀之海가 있으니 이 네가지로 (천지의)四海와 相應합니다.

---

2) 馬; 天下經常之水는 固十有二 而此水는 皆注于海하고 海有東西南北之四方 故로 不曰十二而止曰四海也라 ●張; 天天主生物하고 地主成物하니 是以로 人之形身은 應地之四海와 十二經水라

3) ●太素; 十二經水者는 皆注東海하고 東海周環하야 遂爲四海하며 十二經脈은 皆歸胃海하니 水穀胃氣環流하야 遂爲氣血髓骨之海故也니 水穀之海는 比於東海也라 ○景岳; 四海者는 百川之宗이요 人亦有四海則髓血氣水穀之海也라 ○張; 水天之氣는 上下相通하니 是以로 頭氣有街하고 胸氣有街하고 腹氣有街하고 脛氣有街하야 經氣上下之出入也라

4) ○太素·語譯; 胃脈以爲陽表也요 手太陰足少陰脈爲陰裏也라 衝脈爲十二經脈及絡脈之海니 卽亦表亦裏也라 ○景岳; 陰陽者는 經脈之陰陽也라 表裏者는 藏府之內外也라 榮輸義는 詳前十四(卷八 經絡類 十四「井滎腧經合數 - 靈樞·九鍼十二原篇」所出爲井은 脈氣由此而出하니 如井泉之發이니 其氣正深也라 所溜爲滎은 急流 曰溜요 小水 曰滎이니 脉出於井이 而溜於滎하야 其氣尙微也라 所注爲腧는 注는 灌注也요 腧는 輸通也니 脉注於此而輸於彼니 其氣漸盛也라 所行爲經은 脉氣大行하야 經營於此하니 其正盛也라 所入爲合은 脉氣至此하야 漸爲收藏 而入合於內也라 二十七經絡所行之氣는 皆在五腧之間也라)라 知此數者 則經絡之道明 而四海可定矣라 ○張; 合人於天地四海에 必先明知陰陽表裏榮輸之所在하야 四海定矣라 ●白話解; 必先明確的了解經脈的陰陽和臟腑的內外表裏와 以及井滎腧經合各穴的所在部位하야 那末 就可以確定髓血氣水穀會聚之處的四海了라

黃帝께서 물으셨다. 자연계의 四海와 사람을 相應시킨 선생님의 말씀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相應하는 바를 듣고자 하는데 어찌되는 것입니까?

岐伯이 대답하였다. 반드시 먼저 陰陽과 表裏와 榮輸의 所在를 명확히 알아야 四海를 定할수 있습니다.

第 2章 四海의 部位와 輸穴

【原文】

黃帝 曰定之奈何오

岐伯 曰胃者는 水穀之海1)니 其輸上在氣街2)(1)요 下至三里(2)[1]며 衝脈者는 爲十二經之海니 其輸上在於3)大杼(3)요 下出於3)巨虛之上下廉4)(4)[2]이며 膻中者는 爲氣之海니 其輸上在於3)骨柱5)之上下(5)요 前在於3)人迎(6)[3]이며 腦爲髓之海니 其輸上在于6)其蓋(7)요 下在風府(8)[4]이니이다

黃帝 曰凡此四海者는 何利何害요 何生何敗오

岐伯 曰得順者生이요 得逆者敗며 知調者利요 不知調者害[5]이니이다

【校勘】

1) 胃者水穀之海: 『太素』, 『甲乙』에는 "胃者 爲水穀之海"로 되어 있다.

2) 氣街: 馬註本과 張註本에는 "氣衝"으로 되어 있다.

3) 其輸上在於骨柱: 『甲乙』에는 '其輸上在骨柱'로 되여 있다.

4) 巨虛之上下廉: 『甲乙』에는 "巨虛上下廉"으로 되어 있다.

5) 骨柱: 『太素』, 『甲乙』, 『馬註本』, 『張註本』, 『類經』에는 '柱骨'로 되어 있다.

6) 其輸上在于其蓋: 『太素』에는 '其輸上在其蓋'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氣街(기가): 穴名, 足陽明胃經의 氣衝穴이다. 任脈의 曲骨穴 兩傍 二寸부위의 動脈應手處이다.

(2) 三里(삼리): 穴名, 足陽明胃經의 足三里穴이다. 膝下三寸處에 있다.

(3) 大杼(대저): 足太陽膀胱經의 經穴, 第1胸椎下 兩傍 各 一寸五分處에 있다.

(4) 巨虛之上下廉: 足陽明胃經의 上巨虛(膝下六寸處)와 下巨虛(膝下九寸處)이다.

(5) 骨柱之上下: 骨柱는 뒷목의 天柱骨을 지칭하므로 骨柱의 上下는 督脈의 瘖門穴(第一頸椎下)과 大椎穴(第七頸椎下)을 가리킨다.

(6) 人迎(인영): 足陽明胃經의 經穴, 結喉 兩傍 一寸五分 動脈應手處이다.

(7) 蓋(개): 頭蓋骨

(8) 風府(풍부): 督脈의 經穴이며, 後髮際上一寸에 있다.

【較註】

[1] 胃者水穀之海 其輸上在氣街 下至三里

太素·馬·景岳·張·丹波·語譯은 "사람은 水穀에서 氣를 받으니, 水穀이 입으로 들어와 胃에 간직되어 五臟의 氣를 기르기 때문에 五臟六腑의 氣味는 모두 胃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胃는 水穀之海가 되는 것이다. 그 胃氣가 運行하는 輸는 윗쪽에 있는 것이 氣街니 卽 氣衝穴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三里니 膝下三寸에 있는 足三里穴이다.[5]"라고 하였다.

[2] 衝脈者 爲十二經之海 其輸上在於大杼 下出於巨虛之上下廉

太素·馬·景岳·張·丹波·甲校釋·語譯은 "이는 바로 血海이다. 衝脈은 胞中에서 시작하여 앞쪽으로 가는 것은 足少陰經과 나란히 가서 배꼽을 끼고 올라 胸中에 이르러 흩어져 분포하고, 뒷쪽으로 가는 것은 위로 등 안쪽을 순행하여 흐르므로 經絡之海가 되니 위로 가는 것은 頏顙으로 나오고, 아래로 가는 것은 足로 나오기 때문에 그 輸가 위로는 足太陽經의 大杼穴이 되고, 아래로는 足陽明經의 上巨虛와 下巨虛가 된다.[6]"고 하였다.

[3] 膻中者 爲氣之海 其輸上在於骨柱之上下 前在於人迎

太素·馬·景岳·張·黃·丹波·白話解·甲校釋·語譯은 "膻中은 胸中이니 肺가 있는 곳이다. 諸氣는 모두 肺에 속하니 이것이 眞氣요, 또한 宗氣라고도 하는 것이다. 宗氣는 胸中에 쌓인 후 喉嚨으로 토해져 나가서 心脈을 관통하여 호흡이 이루어지게 하므로 膻中이 氣海가 되는 것이다. 柱骨은 목 뒤쪽의 天柱骨이니 氣海가 運行되는 輸穴의 하나는 頏顙의 뒤쪽이니 바로 柱骨의 上下인데 督脈의 瘖門穴과 大椎穴이고, 또 하나는 頏顙의 앞쪽이니 足陽明經의 人迎穴이다.[7]"라고 하였다.

---

5) ○太素·語譯; 胃盛水穀 故로 名水穀之海요 胃脈은 足陽明也요 足陽明脈은 過於氣街三里하니 其氣上下輸는 此等穴也라 ○馬; 氣街는 卽氣衝이니 天樞下八寸에 腹下夾臍相去四寸에 在鼠鼷上一寸의 動脈應手宛宛中이니 乃衝脈所起也라 針三分留七呼하야 氣至卽瀉하고 灸三壯이라 三里는 膝下三寸에 骭骨外廉大筋內宛宛中에 兩筋肉分間이니 針八分留十呼瀉七吸하고 灸可至百壯이라 ●景岳·丹波; 人受氣於水穀하니 水穀入口藏於胃以養五藏氣 故로 五藏六府之氣味는 皆出於胃 而胃爲水穀之海也라 其胃氣運行之輸는 上者在氣街니 卽氣衝穴이요 下者至三里니 在膝下三寸이라 ○張; 胃者는 水穀之海니 其輸上在氣衝은 氣在腹者가 止之背俞요 下至足之三里하니 是는 水穀之海가 上通於天氣而下通於經水也라

6) ○太素·語譯; 衝脈은 管十二經脈하고 大杼는 是足太陽手少陽脈所發之穴이요 巨虛上下廉은 則足陽明脈所發之穴이니 此等諸穴은 皆是衝脈致氣之處 故로 名輸也라 ○馬; 衝脈은 爲十二經之血海니 其輸穴은 上在于足太陽膀胱經之大杼니 項後第一椎下에 相去脊中各一寸半陷中이니 針三分留七呼요 禁灸라 下出于足陽明胃經之巨虛上廉與巨虛下廉이니 上巨虛는 三里下三寸에 擧足取之하니 針三分灸七壯이요 下巨虛는 上廉下三寸이니 蹲地擧足取之하니 針三分이요 灸可至七七壯이라 ●景岳·丹波·甲校釋; 此卽血海也라 衝脈起於胞中하야 其前行者는 並足少陰之經하야 俠臍上行至胸中而散하고 其後行者는 上循背裏하야 爲經絡之海니 其上行者는 出於頏顙하고 下行者는 出於足 故로 其輸上在於足太陽之大杼요 下在於足陽明之巨虛上下廉이라 ○張; 衝脈者는 爲十二經之海니 其輸上在於太陽之大杼하고 下至巨虛之上下廉 而出於脛氣之街하니 是衝脈之外通於天氣 而內通於經水也라

7) ○太素·語譯; 膻은 胸中也요 音檀이라 食入胃已에 其氣分爲三道니 有氣上行經隧하야 聚於胸中하니 名曰氣海요 爲肺所主라 手陽明是肺腑脈行於柱骨上하야 下入缺盆하고 支者는 上行至鼻하야 爲足陽明하야 循頸下人迎之前하니 皆是膻中氣海氣之輸也라 ○馬; 膻中은 爲氣之海요 其輸穴은 在于督脈經天柱骨之上下니 狹項後髮際大筋外廉陷中이니 針三分留六呼요 灸七壯이라 前在于足陽明胃經之人迎이니 頸大脈應手요 結喉兩旁一寸半이니 禁針灸라 ●景岳·丹波·甲校釋; 膻中은 胸中也니 肺之所居라 諸氣者는 皆屬於肺하니 是爲眞氣요 亦曰宗氣라 宗氣積於胸中하야 出於喉嚨하야 以貫心脈而行呼吸 故로 膻中爲之氣海라 柱骨은 項後天柱骨也니 憂志無言論에 曰頏顙者는 分氣之所泄也라하니 故로 氣海運行之輸는 一在頏顙之後니 卽柱骨之上下足 謂督脈之瘖門大椎也요 一在頏顙之前으로 謂足陽明之人迎也라 ○張; 膻中者는 爲氣之海니 在膺胸之內요 宗氣之所聚也라 宗氣流於海하니 其下者는 注於氣街하고 其上者는 走於息道 故로 氣在胸者 止之膺與背俞라 故로 其輸上在背之天柱요 前在膺胸之人迎이니 是는 氣海之上通於天 而下通於經水也라 ○黃; 心主之宮城이요 宗氣之所在也라 ○白話解; 這裏的膻中은 是指胸中部位而言이라 因肺在胸中하야 主一身之氣하며 它不僅行使呼吸交換氣體的功能이요 且能布散水穀的精氣하야 以充養全身하니 所以把膻中部를 稱爲氣之海라

[4] 腦爲髓之海 其輸上在于其蓋 下在風府

太素·馬·張·白話解·甲校釋·語譯·校釋은 "胃가 津液을 흐르게 하여 骨空으로 스며 들어가서 변화하여 髓가 되고 頭中에 가장 많기 때문에 髓海라고 하며 腎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 氣가 위로는 百會穴로 흐르고, 아래로는 風府穴로 흐른다.[8]"라고 하였고, 景岳·黃은 "모든 뼈에 모두 髓가 있으나 유독 腦가 가장 크므로 모든 髓가 腦에 속하고, 腦는 髓海가 되는 것이다. 蓋는 腦蓋骨이니 督脈經의 顖會穴을 말한다. 風府穴도 역시 督脈經의 經穴이며, 이것들이 모두 上下前後에 있는 髓海의 輸인 것이다.[9]"라고 하였다.

[5] 得順者生 得逆者敗 知調者利 不知調者害

太素·馬·景岳·張·語譯은 "이들 四海는 모두 順逆이 있으니, 順을 얻었다는 것은 四海를 기르는 방법을 안다는 것이니 生하게 되는 것이고, 기르는 방법을 모르면 逆이 되는 것이며 죽게 되는 것이다.[10]"라고 하였다.

【直譯】

黃帝께서 물으셨다. 어떻게 정합니까?

岐伯이 대답하였다. 胃는 水穀之海로서 위로는 氣街에서 아래로는 三里까지가 輸가 되며, 衝脈은 十二經之海로서 위로는 大杼가, 아래로는 上巨虛와 下巨虛 부근이 輸가 되며, 膻中은 氣之海로서 위로는 骨柱의 아래위가, 앞으로는 人迎穴이 輸가 되며, 腦는 髓之海로서 위로는 頭蓋骨에, 아래로는 風府에 輸가 있습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四海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이로움과 해로움을 주며, 어떤사람은 잘 이용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잘 이용하지 못하며 살게 됩니까?

岐伯이 대답하였다. (四海를 다스리는 이치에)順한 사람은 잘 이용하며 살고, 逆한 사람은 잘 이용하지 못하면서 살게 되며, 조화롭게 할 수 있는자는 이로울 것이고, 그렇지 못한자는 해를 입을 것입니다.

第 3章 四海의 有餘不足과 治療原則

【原文】

黃帝 曰四海之逆順은 奈何오

岐伯 曰氣海有餘者[1]는 氣滿胸中하고 悗息面赤[2]하며 氣海不足[3] 則氣少不足以言[1]하며 血海有餘[3] 則常想其身大하고 怫然不知其所病하며 血海不足[4]하면 亦[5]常想其身小하고 狹然不知其所病[2]이요 水穀之海有餘[3] 則腹滿[6]하고 水穀之海[4]不足 則饑不受穀食[3]하며 髓海有餘[3] 則輕勁多力하고 自過其度하며 髓海[4]不足 則腦轉耳鳴하고 脛痠眩冒[7]하고 目無所見하고 懈怠安臥[4]하니이다

黃帝 曰余已聞逆順하니 調之는 奈何오

岐伯 曰審守其輸 而調其虛實하야 無犯其害니 順者得復하고 逆者必敗[5]하니이다

黃帝 曰善타

【校勘】

1) 者: 『甲乙』에는 '則'으로 되어 있다.

2) 氣滿胸中悗息面赤: 『太素』에는 "氣滿胸中息面赤"으로, 『甲乙』에는 "氣滿 胸中悗 急息面赤"으로 되어 있다.

3) 血海有餘 等: 『太素』에는 각각 "血海有餘者", "水穀之海有餘者", "髓海有餘者"로 되어 있다.

4) 氣海不足 等: 『甲乙』에는 각각 '氣海', '血海', '水穀之海', '髓海'가 없이 '不足'만으로 되어 있다.

5) 亦: 『太素』와 『甲乙』에는 '則'으로 되어 있다.

6) 腹滿: 『太素』에는 "腹滿脹"으로, 『甲乙』에는 "腹脹滿"으로 되어 있다.

7) 脛痠眩冒: 『太素』에는 "胠痠眩皃(目+冒)"로 되어있다.

【字句解】

(1) 悗(문): 煩悶也, 답답할 문

(2) 怫(불): 怫鬱也, 답답할 불

(3) 狹(협): 隘狹也, 좁을 협

(4) 痠(산): 痛也, 저릴 산

(5) 眩冒(현모): 아찔할 현, 쓰개 모; 머리에 두건을 뒤집어 쓴 듯 아찔한 모양; 王은 "眩은 눈이 어지러워 보이는 물건이 도는 것 같은 것이고, 冒는 가려져서 답답한 것을 말한다.[11]"고 하였다.

(6) 懈怠安臥(해태안와): 게으를 해, 게으를 태, 편안할 안, 누울 와; 몸이 게을러져 움직임이 둔하고 편히 누으려고만 하는 모양

【較註】

[1] 氣海有餘者 氣滿胸中 悗息面赤 氣海不足 則氣少不足以言

太素·馬·景岳·張은 "氣有餘는 邪氣가 實한 것이고, 氣不足은 正氣가 虛한 것이니 아랫글도 같은 의미이다. 氣海는 胸中에 있어서 陽에 屬하기 때문에 氣實하면 가슴이 답답하여 喘息이 나오게 되고, 얼굴로 熱이 올라 벌겋게 되고, 목소리가 氣勢있게 나오게 되며, 氣가 不足하면 語言가 작고 겁에 질린 듯 하여 나오지 않는다.[12]"라고 하였다.

---

8) ●太素·甲校釋·語譯; 胃流津液하야 滲入骨空하야 變而爲髓하니 頭中最多 故로 爲海也요 是腎所生이라 其氣上輸腦蓋百會之穴하고 下輸風府也라 ○馬; 腦는 爲髓之海요 其輸穴은 在于其蓋니 卽督脈經之百會라 前頂後一寸半中央이니 針二分이요 灸七壯이라 下在于督脈經之風府니 一名舌本이요 項後入髮際一寸의 大筋內宛宛中이니 疾言其肉立起하고 言休立已하며 禁灸令人失音하며 針三分이라 ○張; 腦爲髓之海니 氣在頭者는 止之於腦 故로 其輸上在於其蓋요 下在督脈之風府니 是는 髓海之上通于天 而下通於經水也라 蓋는 謂督脈之百會라 督脈應天道之環轉覆蓋 故로 曰蓋라 ○白話解; 蓋는 是指位于頭正中央的督脈百會穴이니 爲治療一切腦疾患的要穴이라 ○校釋; 髓充滿于腦하니 所以腦稱爲髓海요 它的氣血髓注的重要輸穴은 上邊的有腦蓋中央的百會穴이요 下邊的是風府穴이라

9) ●景岳; 凡骨之有髓나 惟腦爲最巨 故로 諸髓皆屬於腦 而腦爲髓之海라 蓋는 腦蓋骨也니 卽督脈之顖會라 風府도 亦督脈穴이라 此皆髓海之上下前後輸也라 ○黃; 蓋는 腦蓋骨이니 督脈之顖會라

10) 太素·語譯; 得生得敗는 言逆順이니 天也요 爲利爲害는 言調不이니 人也라 ○馬; 此言四海之得生且利者는 以其順而善調之요 否則敗與害至矣라 ●景岳; 凡此四海는 俱有順逆하니 得順者는 知所養者也 故로 生이요 不知所養則逆矣 故로 敗라 ○張; 姚氏 曰人合天地四海하야 升降出入運行無息 故로 得順而和者 則生利無窮하고 逆而不調 則敗害至矣라하니라

11) 『素問·玉機眞臟論』에 對한 硏究; 鄭憲瑩, 素問硏究集成 권2 제19편, p243, "王氷註; 眩은 謂目眩視如轉也요 冒는 謂冒悶也라"

12) 太素; 有餘謂邪氣盛眞氣也요 面赤謂氣上衝面하야 陽脈盛也라 ○馬; 此言四海之逆順이니 先擧氣海之偏勝者以言之하야 見其所以爲逆이니 反此則爲順也라 有餘者는 邪氣有餘而實也요 不足者는 正氣不足而虛也니 下文倣此라 ●景岳; 氣有餘者는 邪氣實也요 氣不足者는 正氣虛也니 下放此라. 氣海在胸中而屬陽 故로 氣實則胸中悗悶喘息하고 面熱而赤하고 聲由氣發하며 氣不足則語言輕怯하야 不能出聲이라 脈要精微論에 曰言而微하고 終日乃復言者는 此奪氣也라하니라 ○張; 吳氏 曰天地陰陽之道는 更相和平者也 故로 有餘不足皆爲之逆이라 膻中者 宗氣

[2] 血海有餘 則常想其身大 怫然不知其所病 血海不足 亦常想其身小 狹然不知其所病

太素는 "血多脈盛하기 때문에 정신이 몸이 크다고 느끼고 怫鬱하고 不安하여 고통스로운 곳을 알지 못한다.[13]"고 하였고, 景岳·張·丹波·白話解·語譯은 "형체가 血로 충만하기 때문에 血有餘하면 항상 자기 몸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血不足하면 항상 자기 몸이 작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모두 血海가 조화되지 못해서 생긴 병들이고, 血에 병이 있으면 病程이 느리면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득하여 병든것을 깨닿지 못한다.[14]"라고 하였다.

[3] 水穀之海有餘 則腹滿 水穀之海不足 則饑不受穀食

景岳·張은 "有餘하다는 것은 水穀이 내부에 留滯되어 있는 것이므로 脹滿한 증세가 있고, 不足하다는 것은 脾가 虛하면 運化하지 못하고, 胃가 虛하면 음식을 들이지 못하는 것이므로 비록 배가 고프지만 곡식을 받아 들일수 없게 된다.[15]"라고 하였다.

[4] 髓海有餘 則輕勁多力 自過其度 髓海不足 則腦轉耳鳴 脛痠眩冒 目無所見 懈怠安臥

太素·景岳·丹波·白話解·甲校釋·語譯은 "髓海가 充足된 것이 有餘이므로 몸이 가볍고 剛健하고 맘껏 이용하고 힘이 좋아서 그 자체로 보통사람들보다 건강하여 병이 없는 것이다. 不足한 경우에 몸의 윗쪽에서는 어지럼증이 생기는데 뇌가 빈 상태로 돌기 때문에 빙빙 도는 것 같은 것이요, 耳鳴이 생기는데 髓가 虛하면 精도 衰해지고 陰虛가 되면 耳鳴이 되는 것이요, 정강이가 시리게 되니 骨髓가 空虛하여 무력한 것이요, 뭔가들 뒤집어 쓴 것처럼 어지러워서 문득문득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앞이 보이지 않으며 게을러져서 누우려고만 하니 모두 髓가 精의 일종으로서 精이 衰해지면 氣가 없어져서 나오는 여러 증상들인 것이다.[16]"라고 하였고, 張은 "精液은 腦髓를 補益하고 아래로 서혜부와 대퇴부로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髓海가 有餘하면 발이 강해지고 가벼워지며 힘이 많아지게 된다. 度는 骨度를 말하니 髓가 骨空을 따라서 단계별로 움직여서 위로 腦에 통하기 때문에 髓가 有餘하면 그 段階를 넘쳐 흐르게 된다. 髓海가 不足하면 精液이 마르는데, 精液이라고 하는 것은 空竅를 潤澤하게 하는 것이므로 귀는 울게 되고, 눈은 보이는 것이 없게 되며, 液이 없는 자는 關節을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강이가 시리고 나태해져서 눕고자 하는 것이다.[17]"고 하였다.

[5] 審守其輸 而調其虛實 無犯其害 順者得復 逆者必敗

太素·馬·景岳·張·語譯·校釋은 "四海의 輸穴을 지켜서 잘 조절하면 이익은 있으되 해로움은 없고, 順을 얻어야하고 逆을 얻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四海의 輸穴을 살펴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補瀉를 해야 하니 虛하면 補하고 實하면 瀉하면 이로움은 있으되 해로움은 없는 것이니, 그것이 순조롭게 되면 건강을 회복할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逆이 되어 죽게 된다.[18]"라고 하였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四海의 逆順은 어떠합니까?

岐伯이 대답하였다. 氣海가 有餘하면 氣가 胸中에 가득하고, 숨을쉬어도 답답하여 얼굴이 붉어지며, 氣海가 不足하면 호흡이 가늘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血海가 有餘하면 항상 자신의 몸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病이 集積하여 드러나지 않아 병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며, 血海가 不足하면 항상 자신의 몸이 작다는 생각을하고 病勢가 미약하여 어디에 병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水穀之海가 有餘하면 腹滿증세가 있게되고, 水穀之海가 不足하면 배가 고프면서도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髓海가 有餘하면 몸이 가볍고 강하면서 힘이 넘쳐나서 보통사람들보다 건강이 뛰어나며, 髓海가 不足하면 머리가 빙빙돌고 귀가 울고 정강이가 시리고 두건을 뒤집어쓴 듯 어지럽고 눈앞이 보이지 않고 게을러져서 눕고자하게 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逆順에 대하여 들었으니 잘 다스려지게 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였다. 그 輸를 잘 살폈다가 그 虛實을 조절하여 害를 범하지 않는 것이니, 잘하면 건강이 회복되고 잘못하면 죽게 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잘 알겠습니다.

고 찰

1. 1章의 校勘 中 "夫子乃合之於四海乎"에 대한 考察

『太素』에는 "夫子乃合之於四海何乎"로 되어 있다. 문장이

之所居니 上出於喉 以司呼吸 故로 氣海有餘者는 氣滿胸中하야 氣息悗亂하고 氣上逆 故로 面赤也요 氣海不足則氣少하고 氣少 故로 不足乎言이라하니라

13) 太素; 血多脈盛 故로 神想見身大也요 怫鬱不安하야 不知所苦也라

14) ●景岳·丹波; 形以血充 故로 血有餘則常想其身大요 血不足則常想其身小라 此皆血海不調之爲病이니 病在血者는 徐而不顯 故로 茫然不覺其所病이라 ○張; 吳氏 曰衝脈起於胞中하야 上循背裏 (原文 '理')하야 爲經脈之海니 其浮而外者는 循腹右上行하야 至胸中而散於皮膚之間하니 是衝脈之血이 充實於周身 故로 有餘則覺其身大하고 不足則覺其身小하며 怫然狹然하야 不知其爲何病也라하고 王芳侯 曰血以應水 故로 有餘에 常想其大하고 不足則 覺其爲小矣라하니라 ○白話解; 不知其所病은 是形容病程進展緩慢하야 平時看不出有患病的楊子라

15) ●景岳; 有餘者는 水穀留滯於中 故로 腹爲脹滿하고 不足者는 脾虛則不能運하고 胃虛則不能納 故로 雖饑不受穀食이라 ○張; 姚氏 曰胃氣有餘故로 腹脹滿하고 胃氣不足 故로 飢而不受穀食이라

16) ○太素; 腦減不滿顱中 故로 腦易轉하고 喜耳鳴也라 髓不滿脛中 故로 骯痠疼也라 腦虛少筋肉血等 精液不足 故로 眩冒無所見也라 髓虛四支腰脊無力 故로 懈怠安臥也라 ●景岳·丹波·甲校釋; 髓海充足이 卽有餘也 故로 身輕而勁하고 便利多力하야 自有過人之度 而無病也라 若其不足 則在上者爲腦轉하니 以腦空而運하야 似旋轉也요 爲耳鳴하니 以髓虛者精必衰하고 陰虛則耳鳴也요 爲脛痠하니 髓空無力也요 爲眩冒忽不知人하고 爲目無所見하고 怠惰安臥하니 皆以髓爲精類니 精衰則氣去而諸證以見矣라 ○丹波; 上古天眞論에 曰天壽過其度라 ○白話解; 自過其度는 是指因髓海充足하야 能享有超過一般年壽的高壽라 ○語譯; 度는 指常度라

17) ○張; 姚氏曰 精液補益腦髓 而下流陰股 故로 髓海有餘則足勁輕健 而多力이라 度는 骨度也니 髓從骨空循度 而上通於腦 故로 有餘則自過其度矣 髓海不足 則精液竭하고 精液者는 所以濡空竅者也니 是以耳爲之鳴하고 目無所見하며 液脫者는 骨屬屈伸不利 故로 脛痠而懈怠安臥라

18) ○太素; 輸는 謂四海之輸라 ○馬; 此善言守四海之輸穴하야 以善調之則有利無害요 得順而不得逆也라 審四海之穴而善守之하야 以行補瀉之法하니 虛則補之하고 實則瀉之則有利無害니 其順者는 可復하고 否則逆而爲敗也라 ○景岳; 審守其輸는 謂審察其輸穴如上文也요 無犯其害는 無盛盛하고 無虛虛也라 順者得復 逆者必敗는 切戒夫天時人事皆宜하야 愼而不可忽也라 ○張; 吳氏 曰審其輸則知其四海之通於經 而經兪之外通於氣也요 調其虛實則有餘不足自和矣라 害는 謂經氣之逆이요 復則反逆爲順也라 ○語譯; 無犯其害는 謂無犯虛虛實實之誤라 ○校釋; 根據病情하야 把握住四海氣血輸注的各個要穴하야 補虛瀉實하니 不要違背了虛則補之實則瀉之的治療原則 而造成有害的後果라 能够遵循這樣的原則 而使其功能調順的이면 身體就能康復하고 違背上述治療原則 而其功能不能恢復正常的이니 就會有敗亡的危險이라

의미상으로 刺法을 논하면서 계속 十二經脈의 營衛血氣를 가지고 설명하였는데, 이 편에서 문득 四海와의 관계가 추가되는 것에 대한 의문의 뜻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何'가 있다면 더 명확한 문장이 된다. 즉 懸吐를 "夫子乃合之於四海하니 何乎아"라고 하는 것이다. 『語譯』은 '何'는 '可'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역시 이와 같은 의미이다.

2. 2章의 較註 中 "衝脈者 爲十二經之海"에 대한 景岳의 설명

본편의 내용 중 血海에 관한 내용에서 "衝脈者 爲十二經之海"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대하여 景岳은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하고 있는데 자못 참고할만한 내용이 많아서 懸吐·國譯한다.

「動輸篇」에 "胃는 五藏六府之海다."라고 하였고, 「太陰陽明論」에 "陽明은 表이고, 五藏六府之海이다."라고 하였고, 「逆順肥瘦篇」에 "衝脈은 五藏六府之海니 五藏六府가 모두 여기서 기운을 받는다."고 하였고, 本篇에서는 "衝脈은 十二經之海가 된다."라고 하니, 이 이론들에 따르면 胃와 衝脈이 모두 十二經之海가 되고, 동시에 모두 五藏六府之海가 되게 되니 장차 어떻게 辨別할 수 있는가? 그런 이유 때문에 本篇에 水穀之海와 血海의 구분을 지어 놨으니, 水穀之海라는 것은 水穀을 그곳에 담아 저장하여 그로 말미암아 營衛가 化生되게 하는 것을 말하며, 血海는 모든 經絡들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을 受納하여 精血을 이곳에 쌓아 저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그 둘의 차이이다.

아울러 「痿論」에 "陽明은 五臟六腑之海로서 주로 宗筋을 潤養하고, 宗筋은 주로 뼈와 뼈를 묶어서 관절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衝脈은 經脈之海로서 주로 谿谷을 滲灌(몸 구석구석과 四肢의 末端部의 肌肉筋骨에 經氣를 공급)하고 陽明과 宗筋에서 會合하니, 陰經과 陽經이 宗筋에 會合한 經脈을 總括하여 다시 (陽明經의 正脈인) 氣街에서 會合하므로 陽明이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한 것을 참고하면, 陽明은 多血多氣한 府이므로 宗筋을 潤養하고 機關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衝脈은 精血이 모이는 經絡이므로 谿谷에 滲灌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이며, 또 衝脈은 胞中에서 시작하여 少陰의 大絡과 같이 아래로 내려가고, 陽明은 諸經之長으로 역시 前陰에서 만나기 때문에 男女의 精血은 모두 前陰으로부터 내려가는 것이니 二經(衝脈과 陽明經)의 血氣가 모두 이곳(氣街, 즉 氣衝)에서 만나므로 五臟六腑之海라고도 부르고 十二經之海라고도 부르는 것이니 진정 다른 經絡과 비교할 바가 아닌 것이다.

3. 2章의 較註 中 "腦爲髓之海 其輸上在于其蓋 下在風府"에 대한 考察

髓海의 輸에 대하여 太素·馬·張·白話解·甲校釋·語譯·校釋은 百會와 風府라고 하였으나, 景岳·黃은 顖會와 風府라고 하였다. 崔[19]는 百會에 대하여 "兩耳尖을 直上으로 연결하는 線과 頭部를 지나는 督脈의 正中線이 교차되는 頭頂中央部에 取한다.", "신체내의 여러 經脈이 모이고 會하는 데에서 百會라 命名되었다."고 하였고, 顖會에 대하여 "顖會의 '顖'은 원래 頭蓋骨을 형상하여 腦의 위에 毛가 發毛하는 形이고, '會'는 '만난다', '모인다'는 뜻이다. 따라서 顖會는 頭骨이 모여서 닫힌 곳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新生兒의 숨구멍에 해당되어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靈樞·決氣』에 "飮食物이 胃를 통해 들어오면 精微로운 氣가 全身에 充滿되어 뼈를 營養해줌으로써 각 마디의 뼈나 關節들이 구부렸다 폈다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腦髓가 圓滑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皮膚가 潤澤해 지도록 해주는 것이니 이것을 液이라고 합니다.[20]"라고 한 것이나, "液이 모자라게 되면 液이 뼈나 關節, 皮膚, 腦髓 등을 營養할 수 없게 되므로 關節을 屈伸하기 어렵고 皮膚色이 거칠어 지며 腦가 衰弱해지고 정강이 뼈가 시리고 마르며 귀가 자주 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21]"라고 한 것을 볼 때, 骨髓나 腦髓는 水液의 개념이 있고, 머리쪽에서 腦髓의 변화가 감지되는 곳이 百會보다는 顖會쪽이며, 비록 혈관박동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릴 때 腦髓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곳도 顖會이므로 顖會를 髓海의 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3章의 較註 中 '怫然不知其所病'과 '悗然不知其所病'에 대한 考察

이 원문들에 대하여 두가지 견해가 있다. 太素가 "怫鬱하고 不安하여 고통스로운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과 景岳 等이 "血에 병이 있으면 病程이 느리면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득하여 병든것을 깨닿지 못한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며, 두 설명 모두 有餘와 不足의 경우를 나누지 않았고, 의미도 명확치가 않다. 血의 病機가 완만하여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怫然'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상충되는 점이 있다.

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常想其身大'와 '常想其身小'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常想其身大'는 血氣가 왕성하여 두려움을 모르는 당당하고 오만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常想其身小'는 血氣가 적어 겁이 많고 자신감이 없이 위축되어 왜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 양자는 질병을 대하는 태도 역시 상반된다. 전자는 웬만한 병적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으며, 후자는 인체의 모든 부위와 증상들을 모두 커다란 질병인 것처럼 여기게 되어 불안과 공포속에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따라서 양자 모두 "병을 알지 못한다.(不知其所病)"고 하였지만 血海가 有餘한 경우는 病을 病으로 여기지 않아서 病이 들어도 병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不足한 경우에는 몸 전체에 모두 病이 있는 듯 하여 어디에 병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임상적으로 볼때에도 血氣方壯한 청장년기에는 질병이 잘 발생하지 않을뿐 아니라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되고, 곧 잘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언제 아팠냐는듯한 경우가 많으며, 血氣가 쇠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잠깐동안은 이곳이 아프고, 잠깐동안은 저곳이 아프고, 또 오늘

19) 崔容泰 外; 針灸學(上), 集文堂, 1988, pp. 706~709.

20) 靈樞·決氣篇에 對한 硏究; 梁會天, 圓光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1997. "何謂液이니까 岐伯이 曰穀入氣滿하야 淖澤注於骨하야 骨屬屈伸하고 泲澤은 補益腦髓하고 皮膚潤澤하니 是謂液이니이다"

21) 上揭書; "液脫者는 骨屬屈伸不利하며 色夭하며 腦髓消하며 脛痠하며 耳數鳴이라"

은 이곳이 아프고, 내일은 또 저곳이 아프고 하여 도대체 어디가 실제로 病이 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러한 것이 血海의 有餘와 不足에 따른 현상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의 역

黃帝께서 岐伯에게 물으셨다. 내가 일찍이 선생님께 刺法을 배울 때 선생님의 가르침은 營衛와 血氣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저 營衛와 血氣를 운행하는 十二經脈은 안으로 臟腑에 연락되고 밖으로는 肢節에 연락된다고 하셨었는데, 선생님은 또 十二經脈이 四海와 합치된다고 말씀하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岐伯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도 四海와 十二經水가 있는데, 대자연의 經水는 모두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바다는 동서남북쪽에 각각 하나씩 있으므로 四海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대응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사람에게는 髓海·血海·氣海·水穀之海가 있어서 대자연의 四海와 상응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을 대자연의 四海와 서로 합치시킨 선생님의 말씀은 참으로 아득하기만 합니다. 상응하는 바를 듣고자 하니 말씀하여 주십시요.

岐伯이 대답하였다. 반드시 먼저 經脈의 陰陽과 臟腑의 內外表裏와 五腧穴의 所在部位를 알아야 四海를 확정할수 있습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정해 집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胃는 水穀之海가 되니 그 氣가 드나드는 통로는 위로는 氣街에 있고 아래로는 足三里에 있습니다. 衝脈은 十二經之海가 되니 그 氣가 드나드는 통로는 위로는 大杼穴이고, 아래로는 上巨虛와 下巨虛의 부위입니다. 膻中은 氣海가 되니 그 氣가 드나드는 통로는 위로는 瘖門穴과 大椎穴이고 앞으로는 人迎穴입니다. 腦는 髓海가 되니 그 氣가 드나드는 통로는 위로는 顖會穴이고 아래로는 風府穴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이 四海가 우리 몸에 어떤 이로움이나 해로움을 주며, 어떻게 관리하면 살고 어떻게 관리하면 죽게 됩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四海가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고 순조로우면 살고, 넘치거나 부족하여 순조롭지 못하면 죽게되며, 넘치고 부족한 것을 잘 조절하면 건강에 이롭고, 잘 조절하지 못하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四海가 넘치거나 부족하여 순조롭지 못한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氣海에 邪氣가 넘치면 胸中에 氣가 가득차서 편안하게 숨쉬지 못하고 큰 숨을 쉬게 되기 때문에 답답하여 얼굴로 열이 올라 붉어지게 되고, 氣海에 正氣가 부족하게 되면 호흡이 가늘어지고 말소리가 약해지게 됩니다. 血海에 邪氣가 넘치면 항상 자신의 몸이 크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건강을 지나치게 자신하여 병들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血海에 正氣가 부족하면 항상 자신의 몸이 작다고 착각하게 되고 위축되고 의기소침하여 여기저기가 모두 아파서 어디가 병들어 있는줄 알지 못합니다. 水穀之海인 胃에 음식이 積滯되면 배가 脹滿하게 되고, 胃腑의 正氣가 부족하면 주리면서도 음식을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髓海가 충만하면 몸이 가볍고 강하며 힘이 많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힘을 내게 되고, 髓海가 부족하면 머리가 텅 빈듯하여 어지럽고, 귀가 울게 되며, 정강이가 시리게 되고, 머리에 뭔가를 뒤집어 쓴 듯이 흔들거리게 되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기운이 없이 권태로워서 누울려고만 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넘치거나 부족하여 순조롭지 못한 것에 대하여 들었는데, 그것을 조절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四海의 기운이 드나드는 輸穴들을 잘 살펴보다가 虛實을 조절하되, 虛한 것을 더 虛하게 하거나 實한 것을 더 實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 이것을 잘 하면 질병이 회복되어 건강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잘 알겠습니다.

고찰 및 결어

본편의 내용은 四海의 名稱과 部位 및 輸穴과 有餘不足時의 증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輸 穴	部位	사람의 四海	不調	症 狀
(上) 氣衝	胃	水穀之海	有餘	氣滿胸中 悅息面赤
(下) 足三里			不足	氣少不足以言
(上) 大杼	衝脈	血海 (十二經之海)	有餘	常想其身大 怫然不知其所病
(下) 上巨虛, 下巨虛			不足	常想其身小 狹然不知其所病
(上) 瘖門, 大椎	膻中	氣海	有餘	腹滿
(前) 人迎			不足	饑不受穀食
(上) 百會 / 顖會	腦	髓海	有餘	輕動多力 自過其度
(下) 風府			不足	腦轉耳鳴 脛痠眩冒 目無所見 懈怠安臥

四海는 인체의 생리활동 변화에 따라서 각각 有餘하거나 不足한 현상이 나타나는 인체의 부위를 가리키고 있으며, 有餘와 不足 모두 문제를 일으키므로 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虛한 것을 더욱 虛하게 하거나 實한 것을 더욱 實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05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1. 張介賓. 原本類經. 서울, 대성문화사, 1982.
2.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6.
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袁昶刻本). 서울, 대성문화사, 1986.
4. 楊上善. 黃帝內經太素(蕭延平蘭陵堂本 以日抄本互校). 出版社와 出版年度 未詳.
5. 郭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천진, 천진과학기술출판사, 1981.

6.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2.
7. 馬時·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대북, 대련국풍출판사, 1977.
8.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대북, 대일서국, 1977.
9. 黃元御. 靈樞懸解.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90.
10. 丹波元間. 靈樞識. 북경, 인민위생출판사,1984.
11. 李今庸. 新編黃帝內經綱目. 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88.
12. 皇甫謐. 黃帝針灸甲乙經. 대북,, 宏業書局有限公司 1976.
13. 皇甫謐 著, 山東中醫學院 校釋. 針灸甲乙經校釋.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79.

참고사전류

1. 張三植 編著. 大漢韓辭典. 서울, 進賢書館, 1981.
2.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1984.
3. 中醫研究院. 中醫名詞述語辭典. 서울, 民衆書林, 1984.
4.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1970.
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台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6. 許世旭. 새中韓辭典. 서울, 徽文出版社, 1978.
7. 金赫濟 金星元編著. 漢韓大字典. 서울, 明文堂, 1984.
8. 金賢濟 洪元植共譯. 漢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1983.
9.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辭典. 서울, 東洋醫學研究員出版部, 1985.
10. 李熙昇編著. 國語大辭典. 서울, 民衆書林, 1990.
11. 廣東中醫學院編 黃鍾律外一人譯. 漢醫學名詞述語辭典, 논장, 서울, 1987.
12. 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 中韓辭典.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9.
13. 中醫辭典編纂委員會. 簡明中醫辭典. 香港, 1979.